

'2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11	11.20	회의실	9/12	4	1	14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박양우·박종수·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9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3	0	2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기대	<뉴스데스크> 생활인구에 주목하는 이 유(11.25), <시사특 라이브> 기본사회 의 모델 도시 광주(11.29) 등 방송 조 치	'24.11.
"	홈페이지 뉴스 썸네일 이미지, 형식 통일 통해 일관성 유지해 가독성과 시 청자의 관심 유도 바람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11.25)	"
"	<시사 용광로> 전문 용어에 대한 자막 안내 필요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11.25)	"
"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K-전라도 김치' 가능성 은?(11.22), 금남로서 버무려진 1만 포 기 김장 김치(11.22), 국회에서도 김치 담그며 여야 화합(11.22), <뉴스투데 이> 세계 곳곳에서 김치의 날 기념..해 남배추 등 홍보(11.25), <남도탐구생 활> 같이 김치 가치!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11.26) 등 방송 조치	"
"	일자리 창출 사례 소개, 효과 등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이용객이 늘린 일자리 (11.26), 지역특화형 비자, 수도권 접근 성에 울고 웃고(11.27), <우리 고향 안 녕하십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곧 양 질의 살 자리다'(12.3) 등 방송 조치	"
"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 AI 산업단지 되도록 역할 바람	<뉴스투데이> 인공지능 인재 키우면 워하나(11.22), <뉴스데스크> 광주 인 공지능 2단계 '사업 전반 재검 토'(12.2), 특집 <AI 도시 광주를 가 다>(12.5) 등 방송 조치	"
"	광주 소각장 선정 진행 상황 계속 관 심을 가져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 소각장 찬·반 집회 연달아 열려(12.11) 등 방송 조치	"
교양	관광에 필요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바람	<시사특 라이브> '문화특간&곡간' 온천 여행 정보(11.29), <테마기행 길> 화순 군 편(12.20) 등 방송 조치	"
"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시민과 함께하 는 프로그램 바람	<뉴스투데이> "부상없이 40홈런-40도 루 달성하겠다"(12.9), 생방송 <V12 기 아 타이거즈 우승 축하 카퍼레이 드>(11.30) 등 방송 조치	"
"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 연중 전개, 무등산사랑환경대학 운영 등 조치	"

기타	김치대전 관련 다양한 숏츠 개발 바람	유튜브 김치로 하나 되는 국회!(11.25), 세계 김치의 날을 맞이해 모인 1,122명의 시민과 1만 포기의 배추!(11.27) 등 조치	”
”(시청자 의견)	행사 인파 혼잡 관련 보도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경연대회 참가 학생들 모습 담아 피해 발생	홈페이지에서 해당 뉴스 영상 수정 조치(10.29)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기대	지역사회 의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준비하겠음	○		
"	홈페이지 뉴스 썸네일 이미지, 형식 통일 통해 일관성 유지해 가독성과 시청자의 관심 유도 바람	가독성 높은 썸네일 제작해 구독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음	○		
"	<시사 용광로> 전문 용어에 대한 자막 안내 필요	어려운 용어에 대해 음성과 자막, 사전 제작물 방송을 통해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음	○		
"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을 바람	전라도 김치가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보도와 발굴 취재를 준비하겠음	○		
"	일자리 창출 사례 소개, 효과 등 관심 바람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장려해서 일자리 창출 촉진에 이바지하겠음	○		
"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 AI 산업단지 되도록 역할 바람	인공지능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주문할 수 있게 하겠음	○		
"	광주 소각장 선정 진행 상황 계속 관심을 두길 바람	광주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게 이해가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음	○		
교양	관광에 필요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바람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바람	우승 축하 퍼레이드 생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터뷰 등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임	○		
"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	무등산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겠음	○		
기타	김치대전 관련 다양한 슷츠 개발 바람	행사의 의미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하겠음	○		
" (시청자 의견)	행사 인파 혼잡 관련 보도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경연대회 참가 학생들이 모습을 담아 피해 발생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시 더욱 유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11월)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안나 · 김동진 · 박양우 · 박종수 · 이경주 · 이숙희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은 창사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로 주목받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했던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면모를 조명한 <더 프레지던트>,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5.18민주광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기대된다.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박양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나눔과 공동체의 정신을 되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역의 농특산물로 김치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5.18의 현장에서 행사는 여는 것도 그런 의미 때문이다.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김장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남도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관심을 두면 고맙겠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1,122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16개 MBC가 동시에 생방송을 한다. 모든 지역 MBC가 함께 생방송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통해 이 행사의 전국화를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영국 김치학교 설립을 위해 저희가 나서는 등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금요일에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여해 행사의 취지를 살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업무 보고를 해달라.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지난달은 창사 60주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 특집 <시사톡 라이브> 시사톡 콘서트가 열렸고, <남도탐구생활>에서는 노벨문학상 특별기획 1부 초대석 5.18과 노벨문학상, 박구용 편, 2부 초대석 소년의 어머니, 김길자 편, 줌 인터뷰 : 김훈아 번역가 편을 방송했다. 10월 30일 AICON 광주 2024 개막식을 생방송했고, 11월 1일 <놀라운 세시> 공개방송이 영광에서 열렸다. 특별인터뷰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 편, <더 프레지던트> 녹화가 있었다. 11월 22일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전국 16개 지역 MBC에 동시 송출된다. AI 관련 특집 다큐를 12월 초에 제작 완료 예정이다.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로 광산구청장 편 녹화를 먼저 시작하고, 12월 중에 광주 각 구청장 녹화와 편성이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 창업 페스티벌 토크콘서트, 푸른 뱀 해를 품다 VX 스튜디오 녹화, <아시안 탑 밴드 2> 녹화, 송년 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녹화, <시사톡 라이브> 송년 특집 토크콘서트 등 연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이 계속 예정돼 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창사 60주년 특집 연속 기획보도 <나와 광주MBC>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MBC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거나 인생을 바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말까지 격주 방송하는데, 첫 번째 편에는 '소리꾼 김소진의 광주MBC'를 했고, '국립공원 승격 이끈 무등산 지킴이들', '교통문화 바꾼 푸른신호등의 교통 통신원들', '타이거즈와 함께 한 40년, 김재요 해설가' 등을 제작했다. 12월에는 '광주MBC의 목소리 나선희 아나운서' 편이 예정돼 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관련 연속 기획보도를 했는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여러 차례 보도했다. 5.18 왜곡 대응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제목의 보도를

비롯해 생가 매입 등 관련 기념사업 지역사회 의제화했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 관련 기획보도로 영국, 오스트리아 현지 출장 취재했고, 외신기자들 관심 등을 보도했다. 지역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공 배달앱 사용 독려 캠페인을 방송 중이다. <시사 용광로>는 그동안 광주 AI 산업 어디까지 왔나?, 갈 길 먼 여순사건, 해결의 길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적절한가?, 대자보 도시 광주로의 전환, 어떻게?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먼저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 집중취재다. 행사 당일 광주 김치산업의 현황을 비롯해 김치학교 설립의 취지와 전망 등을 보도할 것이다. 한강 작가 노벨상 시상식 관련 기획보도를 준비 중이다.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을 전후로 집중취재 보도 예정이다. 서울 MBC와 협업해 광주와 5.18의 가치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창사 6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연말을 앞두고 의미 있는 다양한 보도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된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강필오 위원 : -<남도탐구생활> 전 세계를 강타한 ‘소년이 온다’ 그리고 ‘한강 신드롬’ 5·18의 세계화로 이어질까? 방송을 시청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갖는 의미와 전 세계와 우리 지역 문학계에 끼친 영향력, ‘한강 신드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5·18의 아픔을 뛰어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의적절한 내용과 전문가의 출연으로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눠주셨다고 생각한다. <테이스티 남도>에서는 챔피언스필드 베이커리 카페를 소개했다. 국내 야구장 내 카페 중 가장 큰 800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인 ‘인크커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점’의 야구공 빵 등 100여 종의 베이커리와 스페셜티, 포토존, 야구와 관계된 굿즈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알려주셨다. 광주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자주 시청하고 있다. 광주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광에 필요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길 바란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울푸드 홍어를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재해석한 광주MBC <핑크피쉬>를 유튜브에서 시청했다. <핑크피쉬>는 이례적으로 한국PD대상에서 작품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레이먼킴, 오세득, 이원일, 김소봉 등 실력파 스타 셰프들이 합류해 홍어를 각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도 담으며 우리 사회가 가진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보여주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기에 즐거움과 음식의 의미까지 재해석해준 방송을 다시 한번 나눠주셔서 특히 좋았다.

○ 김동진 위원 : -<남도탐구생활>에서는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를 조명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우승을 기념해 1982년도 창단 멤버로 前 해태 타이거즈 야구선수이자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 김성한 감독님과 함께 이번 우승의 원동력과 선배로서의 감회 등 야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문구단에 대한 자부심을 챙겨주는 방송이었다. 김성한 전 감독님의 섭외가 매우 적절해서 더욱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축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박종수 위원 :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 <시사 용광로> 토론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심사항목 등 법대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운영 실태 등이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한다는 주장인 듯하다. 토론 주제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기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고지시키는 꾸준한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진행자의 진행 발언 중 ‘전문 용어’, ‘각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토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전문 용어 등에 관한 자막 처리가 다른 토론에 비해 필요했음에도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 이경주 위원 : -유튜브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의견이다. ‘시청자들이 선택한 그 뉴스’는 시청자의 관심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섹션인 것 같다. 최근 우리 광주시민 혹은 광주시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가 주로 환경문제, 저출산, Y 벨트,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청자 관심 사항에 대한 특별 취재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좋을 것 같다. 홈페이지 뉴스 썸네일을 보면 ‘한 걸음 더’, ‘취재가 시작되다’, ‘광주MBC 단

독' 등과 같이 썸네일에 노란색과 하얀색 큰 글씨로 주요 내용을 강조한 디자인이 가독성과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일부 썸네일은 사진만 있거나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어 통일감이 부족해 보인다. 모든 썸네일을 노란색과 하얀색 큰 글씨로 주요 내용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통일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독성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 수 있을 것이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광주문화방송에서 개최한 지난해 김치대전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드린다. 2023년의 키워드는 맛이였다. 2024년의 키워드는 가치라고 한다. 즉 '맛의 가치'를 느끼기에 훌륭한 기획이다. 5.18광장에서 세계무형유산을 재현 시킴으로써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준비해주시는 방송관계자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한다. 5.18광장은 80년 5월의 정신이 깃들어있는 숭고한 그곳에서 화합과 연대 그리고 나눔, 거기에 노벨 문학의 정신이 살아 있는 세계정신이 깃든 터이다. 1,122명과 만 포기 김장을 한다니 맛과 가치가 있는 스토리 텔링으로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들이 책으로 출간되길 기원한다. 광주문화방송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어떤 방송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끼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우리 맛의 가치가 세계적 맛의 가치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을 바라며, 보도와 프로그램을 해주길 기대한다.

○ 정인영 위원 : -11월 2일 방영된 <시청자가 만드는 TV> 중 '무등산 국립공원 야생 조류'를 시청하고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무등산에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한 시청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큰 노력이 들어가고 화질도 좋았다. 이 영상을 계기로 제작자와 함께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10월 24일 방송한 <시사 용광로> '광주 AI 산업 어디까지 왔나?' 편을 시청했다. 막연하게 광주가 AI 산업에 선두 도시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는 세계적인 팜리스 회사가 서울, 경기도 아닌 광주에 사무실을 개설 하게 된 이유가 광주가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좋고,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한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회사에서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다른 회사나 해외로 인력이 빠져나가기 쉽지만, 광주지역은 비교적 정주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이상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광주MBC가 할 일은 이러한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추적관찰 하면서 실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또 말과 성과 부풀리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 AI 산업단지가 되도록 감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 정희 위원 : -10월 18일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에 녹화된 내용을 방송해줬다. 나름으로 의미가 있었다. 한강 작가가 인터뷰 등을 사양하는 가운데, 오히려 진솔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광주MBC의 자랑스러운 자료라고 생각한다. 10월 22일 <남도탐구생활> 프로그램에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께서 노벨상의 역사 중흥동을 소개하면서 한강 작가를 신체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된 작가, 문학의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작가라는 평가는 한강을 제대로 평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탄복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린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연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더욱 좋겠다.

-11월 10일 광주 소각장 후보지 여섯 곳에 대한 뉴스는 그 진행 상황을 간간히 보도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11월 13일 광주MBC 뉴스에서는 광주시가 AI 기업 10개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총 244개가 되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주의 장래에 밝은 소식이였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모 일간지 아카데미에서도 광주에 인재가 있고, 설비가 있어 AI 기업들이 광주로 오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김치대전과 관련하여 외신기자 간담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치대전의 장소가 1980년 5월 광주 공동체의 산 현장이며, 김장을 통해 연대감을 제고한다는 것은 김치를 광주정신에 비유하여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도 김치의 세계화 구상과 관련하여 25년 9월에 김치학교 개교 소식은 매우 반가웠다. "같이, 김치, 가치"라는 캐치프레이즈도 탁월한 아이디어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작성 시기는 불명하지만, 김치대전을 소개하는 숏츠가 재미있었다. 관련 숏츠를 더

개발하면 좋겠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의견으로 지난 10월 31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이다. 총장로 케이팝스타에 참여한 학생의 보호자인데, 행사로 인해 인파가 몰려 혼잡을 이뤘다는 보도를 하면서 경연대회에 참가한 잘못이 없는 학생들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혼잡의 원인이 마치 학생들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보도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보도 화면에 노출된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피해를 준 점이 있었던 듯하다. 영상 처리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유의하도록 하겠다. 해당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 향후 보도 시에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 쓰겠다.
- 박양우 위원장 : -고의성은 없다고 하나 당사자에게는 한번 보도가 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보도나 편성 제작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겠다. 이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